

2023
평 신 도
월례회공과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존 웨슬리의 행복론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2023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목 차

머 리 말	3
격 려 사	4
발 간 사	5
들어가는 말	6

제 1 단원 행복과 평안

1월 행복은 하나님 안에	11
2월 거룩함이 행복이다	15
3월 평안을 구하라	19

제 2 단원 사랑과 소망

4월 사랑하라	27
5월 사랑이 행복이다	31
6월 소망은 하나님께	35

제 3 단원 오늘을 살라

7월 건강함이 행복이다	43
8월 시간을 아끼라	47
9월 오늘을 살라! (Viva Hodie!)	51

제 4 단원 선한 청지기

10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59
11월 선한 청지기	63
12월 모든 선을 행하라	67

영성회복으로 누리는 행복

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



머리말

한국감리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회의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은 수 대표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때부터 ‘평신도 사역’은 감리교회의 중요한,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으면 초기 감리교 운동의 발전과 확산이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선교초기에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수난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분들이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평신도운동의 전통을 이어가는 ‘평신도 월례회 공과’가 되길 기대합니다. 2년 동안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라는 주제로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한국초기선교역사에서 멋진 평신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존 웨슬리의 행복이 주제입니다. 영성회복은 나의 행복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영성회복입니다. 18세기 힘들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복음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이끈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영성회복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으로 자리매김하는 평신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달픈 인생 길에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평신도 교재가 되도록 기획하고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이 공과를 통해 존 웨슬리가 붙잡았던 행복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고 행복을 주는 교회,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박장규** 감독

2023년, 주님이 주시는 새해에도 주님과 더불어 늘 행복한 삶이 이어지시길 원합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현실과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의 삶이 기쁨으로 어어지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 넘어 성령님이 주시는 영성을 회복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 된 삶이 어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혼돈이 도래했고, 극도로 피폐해진 가난에 찌든 도시빈민들이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실업률은 폭등하고, 도박, 알콜중독, 매음, 절도, 고아와 과부의 인권문제, 노예 제도 등 심지어 6, 7세 아이들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케이프가에서 1738년 5월 24일 회심한 이후로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도 구원받아야 함을 외치며 영국 사회와 전세계를 향해서 참 복음의 진리를 안내하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복음을 외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성령의 은혜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폐허가 된 영국 사회에 웨슬리와 감리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사랑의 혁명, 복음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교리와 정신과 훈련을 소홀히 함으로 잃은 무성한 바리새적인 종교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한 믿음의 순례를 걸었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새해 평신도 월례회공과의 주제인 **“존 웨슬리의 행복론”**을 통해 더욱 깊은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 평신도 운동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랑스런 존 웨슬리의 행복한 삶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고 자랑스런 감리교인임을 늘 잊지 않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월례회공과의 주제는 **“존 웨슬리의 행복론”**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이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행동하는 감리교인이면서 행복한 감리교인이 되기를 설교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실 속에서 어떤 이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는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회 역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끈을 붙잡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행복의 끈이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 있다면, 그래서 나부터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행복과 평안을 느끼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례회공과를 통해 2023년 한해,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월례회공과 집필 및 감수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자를 위한 설명

집필자 **김정민** 목사

이번 공과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생전에 그렇게 살았고, 가르쳤고, 전파했던 ‘행복한 삶’을 다양한 주제에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천문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가 남긴 설교나 편지, 논문 속에 들어 있는 사상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행복’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모든 신학의 주제는 행복이며, 그의 구원론은 곧 행복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참되고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참된 길이라고 믿었고, 믿는 바대로 살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인들이 존 웨슬리가 ‘행복’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실천하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2023 월례회 공과는 존 웨슬리가 성도들과 가족, 지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전한 가르침들을 다양한 주제로 담아내었습니다. 존 웨슬리 자신을 비롯하여 18세기 초기 감리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매월 각 주제에 맞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성경말씀과 웨슬리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의 영성을 가슴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끝으로 ‘성찰을 위한 질문’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영성과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는 성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행복론자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인간의 의미에 대하여 ‘행복의 향구를 찾아 항해하는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슬리 역시 기독교의 목적은 모든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웨슬리의 모든 말과 글에 담긴 메시지는 성도에게 ‘하늘 가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길, 참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해설하고 안내합니다. 바라는 모든 성도가 존 웨슬리의 행복론을 담은 「평신도 월례회 공과」를 통해 ‘행복의 향구’를 발견하고 매일 매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감리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헐뜯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 **단원** **행복과 평안**

1월 행복은 하나님 안에

2월 거룩함이 행복이다

3월 평안을 구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 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 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 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행복과 평안

행복은 하나님 안에

1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추구해야 하는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 존 웨슬리의 설교 “사랑에 관하여”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성 경 신명기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 씀

행복은 하나님 안에

세상은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 쾌락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온전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비롯한 물질적인 풍요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은혜인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존 웨슬리는 1783년 7월 5일,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바톤 여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빛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누리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기쁨과 아름다움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인 쾌락주의와 구분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확신하였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행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웨슬리에게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2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만 어떤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과 행복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씀에도 구원은 곧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는 더욱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며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더욱 충만해 집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배우고 구하고 즐거워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에게 신앙생활이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행복을 피하고,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배우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참된 행복을 모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1월에, 진실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돌이켜보아야겠습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과 조건과 근원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가까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행복에 가까운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함께 찬양해봅시다.
그리고 나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종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3:17-18)

중보 기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

행복과 평안 거룩함이 행복이다

2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함이 곧 행복입니다.
- 존 웨슬리의 논문 “메소디스트의 성격” 중에서 -

조용한 기도

찬 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 449장 예수 따라가며

성 경 시편 1:1-2

¹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²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 씀

거룩함이 행복이다

존 웨슬리는 평생토록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마음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이 행복이라고 온 힘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품이 곧 행복한 성품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성품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삶이 불행하다는 것이라고, 거룩함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고 웨슬리는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에서 ‘참된 신앙,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마음은 거룩함뿐만 아니라 행복을 이룹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돈이 많을 때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돈이 없다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집니다.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1791년 1월 29일에 토마스 브로드벤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는다면 그대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대는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깨어진 물 항아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눈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웨슬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이 행복이요 행복이 거룩함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거룩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봅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4)

2.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게 된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짐하는 편지를 써봅시다.

중보 기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

행복과 평안 평안을 구하라

3월

참된 신앙은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결코 알지도 못하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 존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성 경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 씀

평안을 구하라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5~6살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보아도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마음이 불안하여 염려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잃을까 봐 염려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불화하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건강이 상하면 아파서 걱정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웨슬리는 이러한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숭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평안함 가운데 잘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존 웨슬리 역시 사람인지라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지아 선교를 떠나는 여정 중에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존 웨슬리를 비롯하여 동생 찰스 웨슬리와 다른 지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성도들과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도 겪었습니다. 도망치듯 선교지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도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쯤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린 모리비아 교인들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약해지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매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영적서적을 읽고, 성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1780년 3월 7일 자 일기에서, 77년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하게 지낸 날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처럼 고백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자신의 설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에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 5:7)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규칙적인 경건 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웨슬리처럼, 초기 감리교인들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건강이 허락된다면 금식기도 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걱정이나 염려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5분 이상 붙들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찰을 위한 질문

1. 나는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 걱정 노트를 만들어봅시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걱정 노트에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 5분간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실천해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2단원 사랑과 소망

4월 사랑하라

5월 사랑이 행복이다

6월 소망은 하나님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사랑과 소망 사랑하라

4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믿음이며,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요, 진정한 기독교로 가는 길입니다.

- 존 웨슬리의 논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쉬운 해설”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 경 마태복음 22:37-40

³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³⁸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⁴⁰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 씀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사랑 없이 사는 것과 사랑 없이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모든 언어나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짹과리가 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고전 13:1) 사랑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사랑에 대하여**”에서 지식과 능력이 많고 믿음이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와 겸손과 죄를 물리치는 사랑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또 “**가장 좋은 길**”이라는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재능이나 시간의 활용,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나 인간관계, 사업이나 학업, 경제 활동이나 신앙생활 등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 곧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학자가 묻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가장 으뜸가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웨슬리는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찬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정통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목적이라고 웨슬리는 믿었습니다. 또한 초기 감리교인들은 런던에 있는 웨슬리 기념예배당에 웨슬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성구로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40절을 새겨놓았습니다.

웨슬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더불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이어받은 감리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직접 아동복지관을 찾아가고 돌봄 센터를 찾아가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교도소 등을 찾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진솔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오늘 나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2. 오늘 나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중보 기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

사랑과 소망

사랑이 행복이다

5월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이란 시작되자마자 끝나버리는 순간적이고 가벼운 쾌락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란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요 영혼의 기쁨입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사랑에 대하여”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성 경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 씀

사랑이 행복이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1775년 1월 17일에 베시(Betsy)에게 쓴 편지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 사랑보다 깊고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랑보다 크고 깊고 넓은 것은

없으며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듯이,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또 웨슬리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 『원시의학』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명약이며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 바 되어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해진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8)**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증표이자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물질이나 재화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느껴지는 만족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진리가 아닙니다. 소유함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소유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들어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작사·작곡 손경민 / 찬양 하니(장한이 사모))

2.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오늘 잘한 일 2가지를 적어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봅시다.

중 보 기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도 주님의 기도

사랑과 소망

소망은 하나님께

6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 1773년 1월 19일에 패티 채프만에게 쓴 존 웨슬리의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성 경 시편 62: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 씀

소망은 하나님께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광야를 떠났을
때 광야 길이 험난하고 ‘만나’가 싫증이 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
데 불 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
세에게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늦 밤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늦 밤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되심을 믿으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와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웨슬리는 1788년 3월 29일에 해리엇 루이스에게, “**세상의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비록 세상이 험난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1773년 1월 19일에 쓴 편지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778년 10월 26일 자 편지에도 “**세상의 일들이 힘들고 괴로워 낙심될 때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대의 도움은 하늘에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좋은 날을 위하여 예비하십시오.**”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웨슬리가 이처럼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한 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웨슬리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였고 폭도들에게 수도 없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폭도들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변화시키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하고 쇠퇴한 영국국교회와 영국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웨슬리에게 돌을 던졌던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어린양으로 변화되었고, 웨슬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메소디즘 부흥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부흥의 불길은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다윗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사방이 막혔고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바람대로 구원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아래의 빈 곳에 시편 62편을 적어봅시다.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눈으로, 목소리로, 손으로 기도해봅시다.

(시편 62:1~12)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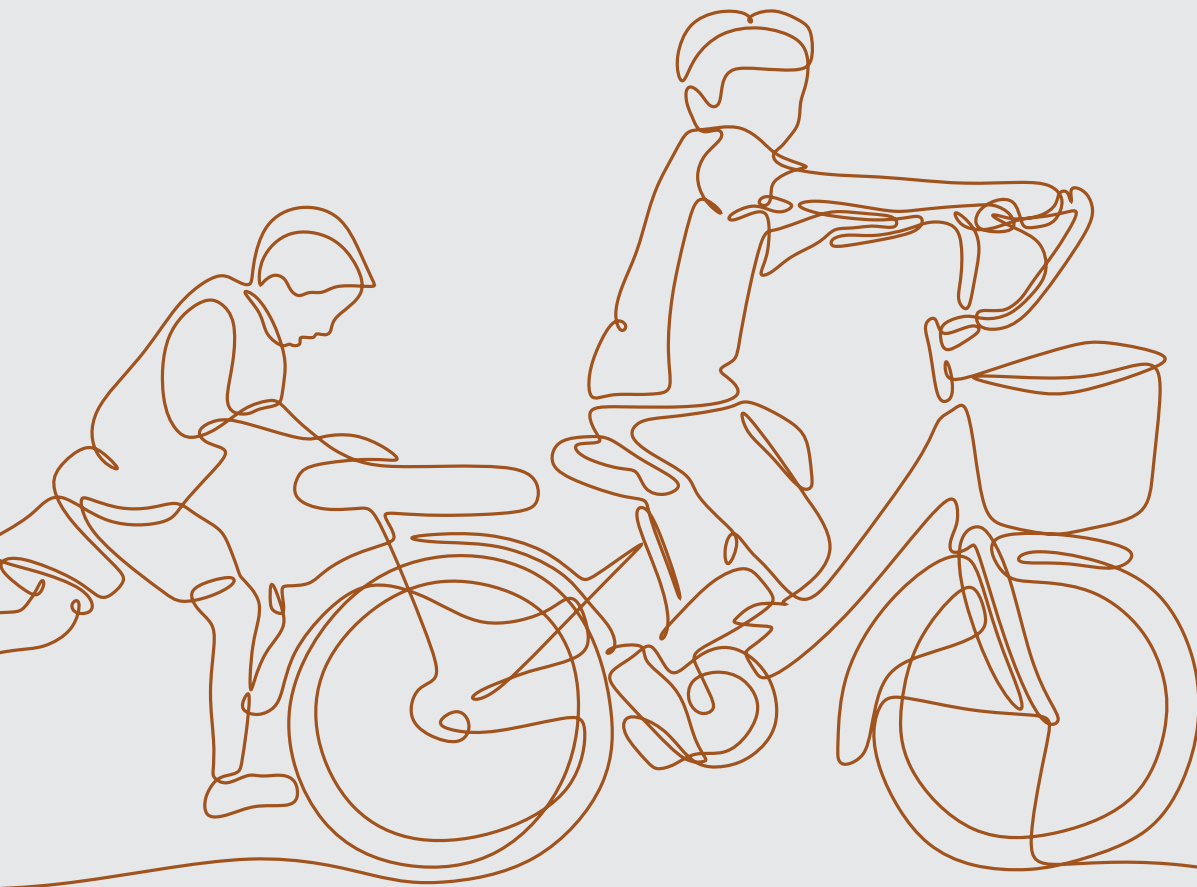


3단원 오늘을 살라

7월 건강함이 행복이다

8월 시간을 아끼라

9월 오늘을 살라!
(Viva Hodie!)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이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 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오늘을 살라

건강함이 행복이다

7월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건강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행복입니다.

- 1790년 6월 6일에 제인 비송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 경 요한삼서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 씀

건강함이 행복이다

존 웨슬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자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고 여겼고,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생 시절 코피를 자주 흘릴 정도로 허약

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영국 전역을 다니며 순회 설교 사역을 하던 50대에는 방방곡곡을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자주 감기몸살을 앓았고 고열로 인해 죽을 고비도 몇 차례나 넘겼습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웨슬리는 일기에 ‘건강’에 대한 기록을 자주 남겼습니다. 1782년 6월 26일 일기를 보면 자신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음에도 병약했던 25살 때보다 신체적 허약함이 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의 비결을 이처럼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렸다.

둘째,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매년 7,000~8,000km를 여행하였다.

셋째,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잤다.

넷째, 규칙적으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다섯째, 매일 새벽 5시에 설교하였다.

1788년 6월 28일 일기를 보면 자신은 66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56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신의 거룩한 습관이며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날 일기를 보면, 웨슬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였고,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였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

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건강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실천했던 방법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도 될 만큼 좋은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좋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특징 중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매일 실천해야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은 200여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웨슬리가 지인들에게 소개했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방법들입니다. 웨슬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 생활이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명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마음 평안히 사는 것이 곧 건강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건강함이 크나큰 행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강건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만의 건강 비결을 서로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영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적어봅시다.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오늘을 살라 시간을 아끼라

8월

시간을 아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십시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1774년 11월 29일에 존 웨슬리가 베시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499장 예수 따라가며

성 경 에베소서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 씀

시간을 아끼라

존 웨슬리는 사랑하는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편지하기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생과 함께 홀리클럽(Holy Club)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성 훈련에 정진했던 때를 그리워하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786년 2월 21일에는 아담 클라크에게 편지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아끼시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고,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 시간을 아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황금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귀한 시간을 거룩하게 열심을 내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링컨 대학교 펠로우 시절,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매주 매일 규칙적으로 모여 영성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시간표를 만들고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웨슬리와 홀리클럽 회원들은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했고, 밤 9시에 잠들었습니다. 4시에 일어나자마자 한 시간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고, 취침 전에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4회 오전 9시(09:00), 오후 12시(12:00), 3시(15:00), 6시(18:00)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영성 일기를 작성하였고, 매일 한 시간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동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월요일에는 학생들을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매주 정기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도와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바카도 감옥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는 캣슬 감옥을 방문하였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주일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처럼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 매주, 매일의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은 홀리클럽 회원들을 메소디스트(methodist)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영성 훈련은 훗날 웨슬리

형제가 영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의 부흥운동을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일평생 시간을 아끼며 선하게 사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굳게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라는 설교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황금 같은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요 선을 행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안일했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 내에서 영성 훈련의 시간표를 작성하고 실천해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더욱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앞으로 1주일 동안 내가 규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성 훈련 계획을 세워봅시다. (예시 : 매일 새벽 기도, 점심시간에 10분 성경 읽기, 취침 전에 30분 기도하고 영성일기 쓰기 등)

2. 영성 훈련 계획을 작성한 후 옆 사람과 자신의 실천 사항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서로서로 점검해주기로 약속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Viva hodie!)

9월

시간을 아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십시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1774년 11월 29일에 존 웨슬리가 베시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성 경 마태복음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 씀

오늘을 살라 (Viva hodie ! , 비바 호디에 !)

이 말은 “오늘을 살라!”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1760년 9월 21일에 존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근심에 빠진 지인들에게 편지할 때 “Live today!”(리브 투데이, 오늘을 사십시오!)라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걱정

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웨슬리는 같은 의미에서 이런 말들도 자주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십시오! 저는 당신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영성의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의 영성’입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사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는 것은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루 종일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내일’을 살아갈 때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의 ‘오늘의 영성’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웨슬리에게 “만약 목사님께서 내일 자정에 죽는다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일 자정에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저는 예정대로 오늘 저녁에 글로스터와 텍스베리에 가서 설교하고, 내일은 교인들을 심방할 것입니다. 또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며 가족기도회를 가질 것입니다. 내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고 편히 누워 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깨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웨슬리의 대답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매일 불안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삶이 곧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그것은 내일 일어날 일이고 아직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지금 주어진 일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인들은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고 내일의 염려를 오늘 끌어다가 걱정하지 않으며, 바로 오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지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바로 지금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스려주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성찰을 위한 질문

1.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시다.

2. 지금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걱정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4단원 선한 청지기

10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11월 선한 청지기

12월 모든 선을 행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5)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선한 청지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10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십시오.

- 존 웨슬리의 설교 “돈의 사용”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성 경 누가복음 16: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 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돈은 우리 삶에 유익한 수단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인생은 패망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딤후 6:10) 예수님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마치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웨슬리 역시 돈의 특성을 무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관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돈의 사용”(the use of money)**입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칙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모든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며 얻은 지식을 실천하여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힘을 다하여 돈을 많이 버십시오. 단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흙과 공기와 물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벌어야 합니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사용하십시오. 결코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 수전노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도박, 사치스러운 음식과 의복, 장신구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명예욕이나 권력을 위해서도 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과소비를 막고, 선을 위하여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십시오.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넉넉히 나누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요 땅과 하늘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잘 지킨다면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세 가지 원칙 안에서 바르게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돈을 사용할 때 스스로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① 나는 지금 이 돈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청지기 신분에게 사용하는가? ②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③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는가? ④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 의인이 부활하는 날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웨슬리가 매 순간 돈을 쓸 때마다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고 답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고, 정직하게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790년 7월 16일 일기에서 자신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였고 많이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감리교인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설교 **“돈의 사용”**은 우리가 자주 읽고 들으며 성찰해야 할 귀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과 네 가지 질문을 늘 가까이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2. 존 웨슬리가 전한 돈을 사용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적어봅시다.

중보 기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11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 존 웨슬리의 설교 “선한 청지기”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성 경 베드로전서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 씀

선한 청지기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힘과 능력, 건강과 시간,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합니다. 그 밖에도

지식이나 능력, 재능, 명예, 지위 등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소유권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누구도 어느 것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기한 동안 잠시 하나님께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인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웨슬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로 다짐하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링컨대학교의 펠로우 교수로 부임했을 즈음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 소녀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가난한 소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할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웨슬리는 마음 깊이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로 그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지나치게 돈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 어느 누가 ‘주인’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청지기 직분이란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

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웨슬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편으로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 “산상수훈 VIII”에서 “여러분이 거저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선한 일에 부자가 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라고 전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은행에 저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청지기 직을 감당했다면 심판은 기쁨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하늘에 쌓아둔 것을 넘치도록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제멋대로 살면 심판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 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2.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지 적어 보고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선한 청지기 모든 선을 행하라

12월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규칙” 중에서

조용한 기도

찬 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성 경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 씀

모든 선을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5~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웨슬리도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은

정통 신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기독교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에서, 세상의 모든 쾌락은 속히 시들어가도 선을 행하는 기쁨은 증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선을 행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을 행할수록 더 많이 행복하게 될 것이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빵을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더 많이 옷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과 갇힌 사람을 더 많이 돌보고, 여러 가지 악에 눌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을 더 많이 행할수록 이 땅에서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칭찬,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의 특징**”이라는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입니다. 죄인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선행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와 고난받는 자를 돌보는 선행입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설교와 가르침 덕분에 초기 감리교인들은 ‘선행자들’(Good doers, 굿 두어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와주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빛을 대신 갇아주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마련해주고,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에게는 가족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인들의 신앙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에서 그치는 자기들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였고,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금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 안에서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 왼쪽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는지 돌보지 않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며 격려와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감리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웨슬리가 말한 두 가지 종류의 선행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행을 적어봅시다.

1)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행

2)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행

3) 내가 친척이나 친구, 지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행

4) 내가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행

중 보 기 도 하나님 나라와 정직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 침 기 도 주님의 기도

참고도서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06.

_____. 『웨슬리 실천신학』. 개정판. 서울: kmc, 2006.

_____.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개정판. 서울: kmc, 2009.

_____. 『웨슬리의 행복론』. 서울: kmc, 2020.

Wesley, Joh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Franz Hilderbrandt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2023년도 월례회 공과 감수위원이신 김진두 박사님의 『웨슬리의 행복론』과 『존 웨슬리의 전집』 중 일기, 설교, 편지, 논문, 에세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존 웨슬리 3가지 삶의 규칙

1. 남을 해하지 말라
2. 선을 행하라
3.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9 Fax. 399-4350